

# “물가 불안한데 성장 기대이상”...23일 금리 동결될 듯

### 전문가 “美보다 앞서 낮출 이유 없어...성장전망 상향·금리인하 상충” “연준 9월 내리면 한은 10~11월부터”...“내년으로 넘어갈수도” 관측도

한국은행이 오는 23일에도 11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예상 올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1.3%)을 근거로 한은이 같은 날 연간 성장률 전망치(2.1%)를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는 더 밝게 보면서 동시에 금리를 낮추는 모순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9월께 인하를 시작하면 한은도 10월이나 11월부터 연말까지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물가·성장·가계부채·환율 상황에 따라 연내 인하 자체가 아

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유가·농산물 여전히 불안”=경제 전문가 7명이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물가 흐름을 동결 전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뛰는 등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김용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주

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목표(2%)를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아직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위원도 2%가 훌쩍 넘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동결의 배경으로 거론했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금리를 낮추기에는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분기 성장 호조에 ‘경기 위한 금리인하’ 명분 약해져=시장의 예상은 웃돈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도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 찬물을 부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춘다’는 명분이 약해진 데다, 경기가 생각보다 호조인

데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수요축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물가는 불안한데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금융 측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도 아직 관측은 상향”이라며 “따라서 금리를 왜 낮춰야 하는지 질문에 한은이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수입 물가를 더 올리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대외적으로도 인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한국 성장률이 강한 수출과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 덕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며 “이에 따라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와 내수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점도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 10~11월부터 연말까지 한차례 0.25%p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한은의

동결에 무게를 실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p) 떨어지면서 시장 일각에선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 고위 인사 다수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로레타 매스터 총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새로 나온 경제 정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얻는 데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께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우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전 영업점서 무더위 식히세요

### 9월30일까지 ‘무더위 쉼터’ 운영 영업점 방문 냉수·부채 무료 제공

광주은행이 이른 무더위를 맞아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광주·전남·수도권 지역 전(全)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9월30일까지 광주은행 127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지역 내 노약자와 폭염 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모든 지역민들을 위한 피서공간으로, 지난 2018년 은행권 최초로 시행된 뒤 매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더위 쉼터 운영을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겼다.

무더위 쉼터는 광주은행 영업시간(오전9시~오후4시)에 운영되며,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수와 부채를 무료 제공한다. 부채는 오는 6월 중에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박성숙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광주·전남지



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와 겨울철 한겨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쉼터를 운영하고 생수와 부채, 휴대용 핫팩 등 계절에 맞는 피서·방한물품을 무료

로 제공해 지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계절나기를 돕고 있다.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쉼터는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고객과 지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K라면 수출 월간 1억달러 첫 돌파

### 지난달 전년 동기비 49% 늘어

한국의 라면 수출 금액이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470억원)로 작년 동월(7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준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식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증가폭은 24.4%로 커졌다.

올해 1~4월 라면 수출액은 3억7886만달러(약 50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4.4% 늘어 수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 증량은 9만4310t으로 27.5%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기중앙회 광전본부 정진욱 당선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전남회장 임경준)는 지난 17일 정진욱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 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이사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진욱 당선인의 제22대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굴한 290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이번 국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넸다.

정진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인의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은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등 복합경제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54% “인사 적체”

### 대한상의, 중고령 인력 운영 조사 높은 인건비·업무효율 저하 부담

대기업 10곳 중 3곳만 현재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255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

기업의 10.2%만 60세 이상 인력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2%는 계약직·임시직으로 고용 중이었다. 대부분의 기업(70.6%)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기업들이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하다고 답한 기업은 21.2%, 더 나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0.4%에 그쳤다.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

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로를 겪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37.6%), 업무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 관리 부담(15.3%) 등의 순이었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였다. 주요 조치(복수응답)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 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삼성전자 냉장고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일상 속 새로운 인공지능(AI) 경험을 선사할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신제품은 프리미엄 냉장고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의 핵심 기능인 AI 기능과 냉각 기능은 유지하고 식재료 보관 기능을 향상했다.

기존과 외관은 동일하지만 19 l 확장된 86 l 저장 용량으로 더 많은 식재료 보관이 가능하고, 채소를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간채소 보관실’을 갖췄다.

또 탈취 효과가 강력한 ‘UV 청정 탈취기’가 탑재되어 부착균을 살균하고 냉장고 안 음식 냄새를 잡아준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는 선반에 넣고 빼는 식재료를 내부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목록을 만들어주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탑재했다.

아울러 냉장도 우축 도어에 장착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요리 중에도 구급 포토,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등 앱과 스마트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2등급을 획득했으며,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 2단계 설정 시 23%까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가 프리미엄 AI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여 ‘AI 가전+삼성’ 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여름 극한강우 대비 댐 수위조절

### 61억t 저수량 확보키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여름철 극한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예년보다 빨리 댐 수위 조절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미리 물고름을 비워 집중호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다목적댐 설계 홍수 조절량(21.8억t)의 3배에 가까운 61억t의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 국내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강댐(29억t) 2개를 전부 비워놓는 것과 비슷한 용량을 확보하는 셈이다.

또 물관리 디지털트윈 시스템과 연계한 홍수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을 신속히 분석, 댐과 하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댐 홍수조절을 시행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삼전강댐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홍수 대비 체계를 살피는 등 내달 말까지 전국 댐을 돌며 시설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대 공사 사장은 “최근 극한 강우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댐은 홍수 방어를 위한 일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극한의 홍수까지 염두에 두고 위기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20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9	26	31	38	41	3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22,163,375	1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812,816	91
3	5개 숫자일치					1,516,552	3,049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910
5	3개 숫자일치					5,000	2,532,990